

# GIST 오롱아트홀, 봄 향기 가득 '복을 전하는 우리 그림, 민화' 전시회 열어

- 2024년 제2회 초대전 3월 11일(월)부터 4월 26일(금)까지 열어
- 성혜숙 대표 작가를 비롯해 총 22명의 전통 민화 작가 참여... 25점 전시



▲ 2024 오롱아트홀 제2회 전시 '복을 전하는 우리 그림, 민화' 포스터

서민들의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을 소박하게 표현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, 민화를 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에서 만날 수 있다.

GIST는 올해 두 번째 오롱아트홀 초대전으로 3월 11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두 달간 '복을 전하는 우리 그림, 민화'를 연다고 밝혔다.

전시회에서는 전통 민화 작가 22명의 작품 25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화조도, 일월오봉도, 장생도, 모란도 등 아름다운 민화가 오롱아트홀 벽면을 화려하게 수놓는다.

또한 우리 선조들의 서재를 생생하게 그린 '책가도'와 민화의 단골손님 '까치와 호랑이', 글자의 의미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한자 획 속에 그려 넣어 서체를 구성한 '문자도', 갑진년을 기념하는 '청룡도' 또한 만나볼 수 있다.

이번 전시회의 민화 속 모티브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바람과 꿈을 담고 있어 그림을 보는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22명의 작가를 대표하는 성혜숙 작가는 한국전통민화협회공모전 최우수상, 한국민화협회공모전 특별상, 한국현대미술협회 심천국제아트페어전 최우수상, 대한민국 황실공예대전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.

성 작가는 약 20년간 주로 민화에 전념해 온 지역 예술인으로, **현재 한국현대민화협회 초대작가로 활동**하면서 한국민화협회 광주·전남지부장, 한국전통민화협회 이사, 백야민화연구소 원장을 맡고 있다.

성혜숙 작가는 “민화야말로 **진정한 한국의 얼과 정신을 담은 그림**이라고 생각한다”며 “**훌륭한 과학자와 연구자로 거듭날 GIST 학생들과 벚꽃길이 아름다운 GIST의 봄 캠퍼스를 방문하는 지역민 모두 이번 전시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 소소하지만 색다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**”고 말했다.

오룡아트홀의 디렉터인 최순임 작가는 “민화는 왕실의 화려한 병풍에서부터 소박한 민가의 벽장문까지 **두루 장식하며 폭넓게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 녹아 있다**”며 “**선조들의 진솔한 삶이 배어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현재에까지 계승해 온 전통 민화 작가 스물두 분의 전시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행복이 느껴지는 전시가 되기를 바란다**”고 말했다.

오는 **4월 26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‘복을 전하는 우리 그림, 민화’** 전시는 **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**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. (주말 개방 문의/ T.062-715-2628)

한편 오룡아트홀은 지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 GIST가 **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**하고자 행사·회의·강연·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인 **오룡관의 1·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**,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이번 ‘복을 전하는 우리 그림, 민화’ 전시까지 총 8회의 전시를 통해 **‘열린 문화예술 공간’**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.